

전국자원봉사리더 완주로

14-15일 우석대 일원서 실천지향 컨퍼런스 열려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14일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진행했다.

전국 자원봉사리더 1천여명이 완주군에 모인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직무대행 이상운 사무국장)는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를 14일과 15일 1박 2일 일정으로 우석대학교 일원에서 진행한다.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은 '성찰과 재정렬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이란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공회대학교 교양학부 김찬호 교수, '술에서 길을 묻다'의 저자인 김용규 시인, 광운대 행정학과 정진경 교수,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김의옥 사무국장, 한일장로신학대학교 조철민 박사, 한국교회봉사단 박승철 사무국장, 마을만들기 전국네트워크 김하생 대표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강사로 참여해 컨퍼런스의 가치를 높였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김도현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대한민국의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인 246개 자원봉사센터의 주역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자기혁신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고 말했다. "이번 컨퍼런스

가 우리들의 마음과 지혜를 한 데 모아 대한민국 공동체의 발전을 이루고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환영사에서 "제1회 전국자원봉사센터 실천지향 컨퍼런스 Plug-In 행사가 완주에서 열리는 것을 10만 완주군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참석을 위해 먼 길을 달려오신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과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을 비롯한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컨퍼런스는 '성찰(Reflection)과 재정렬(Realignment), 그리고 새로운 출발(Restart)을 부르는 공명 리더십!'을 주제로 자원봉사센터들간의 정보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안에 대한

실천적 전략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인만큼 "이번 행사가 대한민국 자원봉사 핵심 인프라인 전국자원봉사센터들이 하나로 뭉치고 네트워크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정성모 완주군의회 의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정현민 행정자치부 국장, 김도현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장, 김영진 경기도 자원봉사센터장(준비위원장),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김훈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장, 김용권 우석대총장 등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 실무자를 비롯한 자원봉사리더 등 1천여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완주=이종복 기자



세계태권도 무도연합회 윌리엄 김 회장 일행이 무주 방문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태권도 무도연합회 윌리엄 김 회장 일행 무주 방문... 美 발레호시 시장 친서 전달

세계태권도 무도연합회 윌리엄 김 회장과 미국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주 발레호시 자매도시협의회 김영희 위원장, 캘리포니아 도로교통안전공단 라파엘 델라쿠루주 사장(세계태권도 무도연합회 부회장) 일행 22명이 14일 무주군을 방문했다.

이들 일행은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참가와 함께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스비 데이비스 발레호시 시장이 전하는 감사패와 친서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군청에서 황정수 군수와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무주군의회 의원들을 만나 담소를 나눴다.

발레호시 시장이 전한 친서에는 무주군과 문화, 교육, 사회,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며 우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는 내용과 가까운 시일 내에 무주군 대표단을 발레호시에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뜻밖의 귀한 손님들이 찾아와줘 감격스럽다"며 "이 자리를 통해 그동안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에 참가하며 태권도와 태권도원, 무주군에 관심 가져 주시고 무주군 학생태권도시범단원들이 시범 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 보여주셨던 애정 어린 보살핌에도 감사를 전하게 돼 기쁘다"고 전했다.

황정수군은 이 자리에서 무주군 대표 특산품인 머무와인과 어린이들을 위한 태권도마블인형을 답례품으로 전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14일 수련원에서 제2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세상을...

무주군, 양성평등주간 행사

무주군은 14일 무주수련원에서 제2회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이 주최하고 무주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숙이)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승열 의장을 비롯한 관내·외 기관사회단체장과 여성·남성단체 회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기념식과 미니운동회, 장기자랑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 무주군농기부모임 정명인 씨와 (사)한국소비자연맹 무주지회 김점순 씨가 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소비자교육중앙회 무주군지회 이순만 씨가 무주군의회 표창을, 무주농협 광동영 농업협회가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주는 감사패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군민과 소통행정 강화

관내 56개 마을 2506가구에 스피커 시설 구축

장수군은 올해 상반기 읍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사업으로 관내 56개 마을 2,506가구에 마을방송시설을 설치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군민과의 소통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관내 7개 읍면 206개 마을 중 153개 마을에 설치했으나 2018년까지 미구축 잔여마을을 대상으로 읍내 마을방송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읍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사업은 노후된 마을회관 앰프를 교체하고 각 가정에 수신단말기(스피커)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올해 56개 마을 2,506가구에 사업비 9억7천1백만원이 투입됐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마을회관에서

말리 떨어져 있는 집은 방송을 듣지 못하거나, 관리자 부재 시 긴급사항을 전달하지 못하는 등 여러 불편함이 있었다"며 "읍내 마을방송시설 구축으로 군민에게 군정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 유사시 신속한 재난·재해 정보 전달로 군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읍내 마을방송시설은 어느 곳에서나 마을관리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쉽게 방송할 수 있어 각종 군정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폭우, 폭설 등 재난·재해의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전파로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이 기대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국비확보 박차

군수·부군수 관계부처 설득 특별교부세 10억원 결실

무주군이 국비(교부세)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무주군은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이 직접 국회와 관계 부처를 뛰어다니며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과 설득을 반복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으며, 그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10억 원의 특별교부세도 지원받아 무주읍과 부남면을 연결하는 대티~봉길 연결도로 개설공사(5억 원)와 태권도 상징거리 조성사업(5억 원)에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대티~봉길 연결도로는 좁은 간결에 대형차량이 통행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개설공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곳이다.

황정수 무주군수는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고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다"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려운 재정 여건을 딛고 일어서야 하는 만큼 국비 확보에 혼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4일 하성용 부군수는 지난 14일 국회와 행정자치부를 방문해 국제태권도관 조성사업과 덕유산탐방배치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를 요청했다.

국제태권도관 조성사업은 2017 무주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추진하려는 것으로,

대회 참가자들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한국의 전통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화, 체험, 관광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덕유산탐방배치센터 건립사업은 버섯재배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무주군이 주민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배지생산 시설과 재배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이다.

무주군은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을 비롯해 국가예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지역의 역할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꾸준한 인구증가로 완주군 마을 수 늘어나

올 7월 현재 529개로 2년 전보다 38개 증가

완주군의 마을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 7월초 현재 완주군의 행정리(분리·마을)는 529개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14년 6월말의 491개에 비해 38개, 비율로는 7.7% 증가한 것이다.

최근에는 봉동읍 월리마을이 상월리, 하월리 마을로 분리됐고, 낙평리 보성마을이 보성마을과 광신 1차 마을과 2차 마을 등 3개로 나뉘었다. 이처럼 마을 수가 늘어난 것은 봉동읍을 중심으로 한 기업유치, 이서 혁

신도시 조성, 그리고 귀농귀촌 등으로 완주군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주군 인구는 2014년 6월말 8만 8029명에서 지난달 9만 406명으로, 2년 새 7467명(8.4%)이나 늘었다.

이 같은 마을 수는 기업유치, 귀농귀촌 인구 등 완주군의 인구 증가세가 이어짐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군 관계자는 "봉동읍과 이서면을 주축으로 종전의 마을이 2~3개로 나뉘는 등 완주군의 분리가 늘어나고

있다"며 "마을 분리에 따른 이장선출, 경계 및 세대 확정 등의 지원업무에 주력해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된다.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3조(하부조직)에 1~2항에 의하면 리(법정리)의 하부조직으로 분리(마을)를 두고 분리 밑에 반을 두기로 규정돼 있다.

또한 분리는 1개 이상 5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하고 반은 15가구 이상 40가구 이하로 구성하되, 아파트 및 주민 집단 거주 지역은 60가구 이상 150가구 이하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완주군의 법정리는 106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2년 연속 지방자치 행정대상 수상

진안군은 2015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방자치 행정대상 상을 수상했다.

(본보 7월 14일자 1면)

진안군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 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린 2016 지방자치 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희망진안'을 위해 군민과 함께 군정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자치 21주년과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2주년을 맞아 지

방자치TV와 월간 지방자치저널 주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향후 3년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조례 발의 및 통과 건수, 공약 이행사항, 자치단체 정보공개 편의성 및 접근성, 지역주민 만족도 등 6개 부문을 종합평가해 총 243개 지자체 중 상위 10% 가량만 선정되었다.

이창로 군수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자치 행정대상을 받은 것은 주민과 의회, 공직자가 군정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를 인정받은 셈"이라며 "앞으로도 치적과 실적보다는 주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청정진안을 기구고 발전시키는데 진안군민 모두가 하나 되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쓰레기 3NO운동, 친환경 우렁이 농법 확대, 친환경 제설제 전면사용 등 청정진안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 농촌버스 요금 단절화, 수요응답형 행복버스 운영 등 주민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속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특별블리스

장수군, 지적재조사 주민설명회

장수군(군수 최용득)은 지난 13일 번안면 신원마을회관, 사치마을회관에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참석해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군은 '신원·사치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을 앞두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및 측량·조사 대행자를 선정에 따른 사업추진 방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 협조사항에 대한 당부와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 전 종이로 구현한 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도로 전환하기 위한 국가사업이다.

군 지적팀장은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면 지적불합치 해결과 잘못된 토지경계가 정리되고 3차원 디지털 지적이 가능해져 주민의 재산권보호와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안전점검의 날 행사

진안군은 14일 주천면 운일안반일원에서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4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안군청 직원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무진장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일안반일원에 찾은 피서객과 주변상가를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무진장소방서 주관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의 발대식과 함께 심폐소생술, 인명구조시연회를 병행 실시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되었다.

군 관계자는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로 평균 35명의 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있다"며 "진안군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피서객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지포별 추진실적 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규)는 14일 지사 소회의실에서 2016년 상반기 지포별 추진실적 및 연말전망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첫번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별 공정진도를 및 부진지구 만회대책 두 번째, 지포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점검 세 번째, 청렴도 향상방안을 위한 무진장 개선방안 네 번째, 공공기관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인 대응방안 등 심도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2014년도에 이어 2015년 A등급(2등)이라는 작지만 강한지사에 맞는 자력을 보여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달하고 직원간의 원활한 업무협조와 소통으로 다시 한번 상위권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경찰, 응급처치 교육 실시

무주경찰서(서장 최성규)는 14일 경찰서 4층 강당에서 여름파출소 파견경찰관, 112파견대원을 상대로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했다.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응급처치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심폐소생술, 제세동기(AED)사용법 등의 응급처치법을 교육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

최성규 서장은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예기치 못한 사고 등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해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